

CCTV ‘분신 사건’ 제작은 정치법률위원회 회에서 나왔다고 방송제작인이 폭로

[명후이왕] 20년 전 1월 23일,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분신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중앙 CCTV의 ‘초점방담(焦點訪談)’ 프로그램에서 5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했다고 선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이 관람했고, 너무 가식적인데다 또 허점투성이라 국제사회는 중공이 제작한 한차례 세기 기편극이라고 인정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 자작 ‘극’은 ‘초점방담’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에서 제작됐다.

2019년 1월 23일 ‘희망의 소리’에서 ‘세상을 속인 가짜 분신’ 제작인 리쥘(李軍)을 인터뷰했다. 2001년 소위 ‘분신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남경 TV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당시 그는 이 방송국의 《사회대왕각》 프로의 제작인이었다. 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지방판 <초점방담>과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 CCTV <초점방담> 인터뷰와도 합작이 있었다.

리쥘은 회억하며 말했다.“대략 1997년, 1998년에 저는 그들과 7~8편의 영화를 합작한 적이 있으며 <초점방담> 기자와 카메라맨들도 우리와 아는 사이입니다. 나중에 저도 사석에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그 사람은 어떻게 찍었

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 그 사람은 우리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럼 어디 사람입니까? 그: 정법위 사람인데 우리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필름 하나를 갖고 바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찍었는지, 솔직히 우리는 모두 내부자인데 보고 모르겠습니까?

이 분신 조작 프로그램은 <초점방담> 제작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전문팀이 만든 겁니다. 이 팀의 사람들은 모두 <초점방담> 제작진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전문 방송인으로서 리쥘은 그해 <초점방담> 분신 기사를 보고 바로 가짜임을 알았다. 그는 말했다. “‘분신 사건’ 당시 한 전문 방송인으로서 저는 그것을 보고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이 텔레비전 제작자인데다가 또 감독이고, 당시 우리 일부 전문가 동료들이 모두 함께 있었는데 서로 쳐다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가장 간단한 원리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카메라를 한 대 주면서 천안문광장에서 분신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해줘도 저는 전부를 찍을 수 없습니다.”

“천안문광장은 그렇게 크고 분신 시간은 많아야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는데 어디 가서 찍습니까? 그래서 왕진동(王進



▲ 왕진동이 ‘분신자살’할때 옷은 불에 타 너덜너덜했지만 제일 쉽게 탈 수 있는 머리카락과 두 다리 사이에 놓인 휘발유를 담은 녹색 음료수병은 마치 새 상품처럼 깨끗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5백도 이상 올라간다. 1분도 못돼 사람은 불에 타 사망한다. 하지만 경찰은 1분 내에 분신자살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몰고 소방기재와 소방담요를 가져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출했다. 이것이 가능한가?

東)이 바닥에서 소리치는 장면을 포함해, 그 여자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장면까지 봤는데 이런 좀 장면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면 찍을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우리는 연극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TV를 찍을 때 연출을 잘해 놓은 것으로 ‘여기에 준비가 다 됐으니 너는 소리를 질러라’입니다. 게다가 카메라 위치가 매우 바른 편인데 왕진동의 위치는 가장 바른 위치입니다. 이 사건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한다면 먹칠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67 세 미국 ‘여자 철인 3 종 경기’ 수상자의 이야기

2018 년 8 월 4 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해마다 열리는 철인 3 종 경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름은 제니 미첼이었다. ‘파룬따파 (法輪大法)’를 위한 자유 (Freedom for Falun Dafa)가 새겨져 있는 경기복을 입은 그녀는 65~69 세 연령 그룹에서 3 위를 차지했는데 그해 67 세 였다.

퇴직나이를 넘긴 사람들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지만 제니는 무엇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인내력을 가장 크게 도전하는 ‘철인 3 종 경기’에 참가했을까?



▲ ‘뉴저지 여자 철인 3 종 경기’ 출발점에 있는 제니 미첼

아름다운 인생이 두 번이나 좌절을 당하다

제니는 뉴욕시 한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뉴욕시의 ‘시 정부 채권’ 관련 유명 변호사였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고 나중에 ‘사회 일자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림을 그려 생계를 꾸렸으며 뉴욕시 첼시 (Chelsea) 구의 한 개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1981 년 제니는 아들을 낳은 후 산후우울증에 걸렸으나 이후 병세는 차차 호전됐다. 1992 년 제니는 이미 오래 기다렸던 딸을 낳았다. 모든 것이 아주 원만해 보였다. 충족한 수입에 순조로운 일자리, 마음에 드는 남편, 현재는 아들과 딸을 모두 가졌으니 정말로 소원대로 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니는 다시 산후우울증이 발작했으며 점점 심해졌다. 이번에 그녀는 어쩔 수 없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주 지나서 그녀는 집에 돌아왔으며 의사는 결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전법륜 (轉法輪)’을 읽고 우울함과 초조함이 사라지다

2003 년 태극권을 연마하는 한 친구가 제니에게 파룬궁 (法輪功)을 소개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법륜 (轉法輪)’ 서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중공이 퍼뜨린 파룬따파를 비

방하는 글을 보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 줄곧 제니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전법륜 (轉法輪)’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니는 느껴본 적이 없었던 평온한 마음을 느꼈고 우울함과 초조함이 모두 사라졌다.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만성피로 증후군’도 사라졌고 그때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졌다.

제니는 말했다. “예전에 저는 면역력이 아주 약해 늘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곤 했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은 늘 ‘아픈 아이를 제니에게 보내면 병에 걸리지 않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탄복한 것은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파룬따파를 만나서야 제가 줄곧 찾고 있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제니는 말했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느껴집니다.”

어릴적 제니는 집안의 셋째였는데 가족이 늘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했다. 언니와의 갈등도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져 원망하기 때문이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다음 그녀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 제니가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그녀에게 “당신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그녀의 수련을 매우 지지했다.

파룬따파의 자유를 위해 달리다

퇴직 후 제니와 남편은 아름다운 경치와 넓은 해안을 자랑하는 뉴저지주 최북단 해변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많은 새 친구를 사귀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리기 위해 2018 년 초 제니는 ‘철인 3 종 경기’에 참가하려고 생각했다. ‘철인 3 종 경기’란 수영, 자전거, 달리기 3 항목이 결합된 체육 항목이다. 이미 나이가 67 세였고 한 번도 이런 경기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었으며, 게다가 철인 3 종 경기는 아주 강한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했다.

제니는 한 번도 장거리 달리를 해본 적이 없었고 이것이 철인 3 종 경기 중 가장 큰 도전이었다. 제니의 소원은 자랑스럽게 ‘파룬따파’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완주하는 것이었다. 2018 년 정월 제니는 경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8 월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계적인 훈련에 참가했다.

경기에는 1 천 명의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3 면에 계속)

성심껏 ' 구자 진언 ' 을 외 워 질병이 즉시 사라지다



[밍후이왕](중국 윈난성 투고) 2021 년 초 , 남편의 사촌 동생은 라오스에 출장을 다녀온 후 요구에 따라 14 일간 격리됐다 .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안심되지 않아 그의 부모님을 우리 집에서 3 일간 머무르게 하고 , 자신은 혼자 집에서 또 3 일간 격리했다 .

나흘째 되는 날 , 사촌 동생은 감사의 뜻으로 온 가족을 식사에 초대했다 . 먹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갑자기 온몸이 오슬 오슬 춥고 아프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래서 나는 빨리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 찐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 (念) 하라고 했다 . 매우 다급해 하는 그의 어머니에게도 함께 염하도록 했다 . 그들은 생명줄이라도 잡은 듯 열심히 염하기 시작했

다 . 이때 올케가 그들에게 다가 가서 대법 진상을 한참 말해줬다 . 10 여 분 후 , 내가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빙그레 웃으며 내 곁에 서서 내가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 . 나는 그가 이미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또 그에게 대법제자들이 왜 진상을 알려야 하는지 말해주고 나서 집에 가면 내가 준 USB(파룬따파와 관련된 각종 진상자료가 들어있음)를 보라고 한다음 그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

여동생이 놀라서 외쳤다 . “신기하다 ! 정말 신기해 !”

[중국 간쑤성 투고] 최근 중공 병독이 전국적으로 다시 빠르게 전염되기 시작했다 ! A 수련생은 또 여동생 집에 대법 진상 호신부를 가져다 주면서 온 가족이 ‘파룬따파하오 , 찐싼

런하오’를 염하는 것이야말로 전염병을 피하는 묘약이라고 했다 .

A 의 여동생과 매제 , 그리고 그들의 막내딸은 조용히 들었고 믿었다 . 그러나 큰딸은 사당에 중독되어 믿지 않고 허튼소리를 했다 . A 의 여동생은 큰딸에게 말했다 . “네가 믿지 않는 건 너의 일이야 . 함부로 말하지 마 !” 큰딸은 몸을 돌려 가버렸다 .

잠시 후 큰딸의 입이 비뚤어지더니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 보기에 매우 무서웠다 . 수련생의 여동생은 보자마자 “빨리 ‘파룬따파하오 , 찐싼런하오 !’를 염해”라고 말했다 .

겁이 난 큰딸은 즉시 “파룬따파하오 , 찐싼런하오”를 반복적으로 염했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 2~3 일 후 큰딸의 입이 돌아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 수련생의 여동생은 놀라 소리쳤다 . “신기하다 ! 정말 신기해 !” 그녀는 더욱 대법을 믿었다 .

(2면의 계속) 각기 다른 연령 그룹에 나뉘어져 있었고 관객도 아주 많았다 . 제니는 ‘철인 3종’ 경기복을 몇 벌을 맞췄고 앞뒤에 모두 ‘파룬따파를 위한 자유’ 문구를 적었으며 , 등에는 파룬따파 정보센터 (Faluninfo.net) 사이트를 적었다 .

가는 곳에서 만나는 스태프들 , 코치 , 업자 , 선수 및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녀의 경기복에 적혀져 있는 두 마디 문구를 아주 궁금해 했으며 , 제니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파룬따파에서 혜택을 받은 경험과 중

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를 알려줬다 .

2018 년 8 월 4 일 제니는 ‘뉴저지 여자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 ‘65~69 세’ 연령 그룹에서 3 등이란 좋은 성적을 거뒀다 . 그녀의 남편 ,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제니를 자랑스러워했다 . 제니는 가족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 행사를 행사 주최측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 제니 가족의 성원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고 제니에게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 그

녀가 첫번째로 받은 댓글은 바로 ‘파룬따파를 위한 자유’가 무슨 뜻인지 묻는 것이 었다 .

맺음말

제니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만약 파룬따파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 더욱이 67 세에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 이것은 기적입니다 .” “저는 모든 중국인과 모든 세상 사람이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아대법을 소중히 하고 존경하길 바라는데 , 그러면 그들도 반드시 대법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

■ 박해 진상 ■

2021 년 1 월 _3 월 , 적어도 28 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아 사망하다

[명후이왕] 청명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사망된 친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지나간 1 년 이 넘는 기간 또 115 명 파룬궁수련생이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해 ‘진선인(真、善、忍)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감옥, 구치소, 파출소의 경찰과 악인에 의해 잔혹한 박해를 받고 사망한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그들 중 대부분은 중공에 의해 불법징역형, 노동교양과 불법감금을 당했으며, 여러차례 중공악경, 악인의 고문과 불명약물주입, 노예노동 등 박해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참혹한 구타와 엄중한 박해를 받은적있다.

곤명시 76 세 정계영 (丁桂英) 박해받아 세상을 떠나다

운남성 곤명시 파룬궁수련생 76 세 정계영은 가족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곤명시 오화구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4 년 불법징역형을 선고받고 운남성 제 2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2021 년 1 월 중순 가족들은 불시에 감옥측의 전화를 받았는데 정계영이 감옥에서 “급병(急病)”에 걸려 감옥병원에 보내 치료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2021 년 1 월 19 일, 감옥 옥경은 정계영의 시체를 화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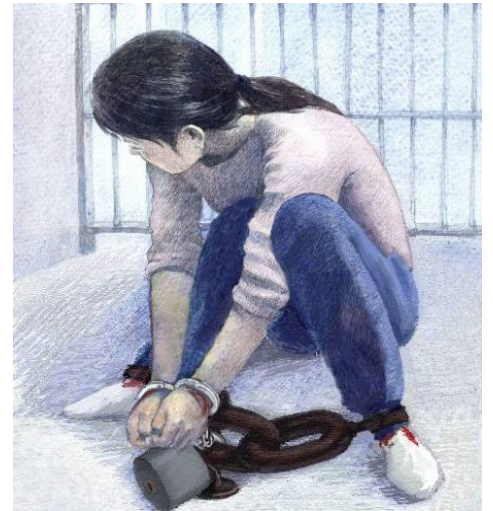
2019 년 8 월 28 일, 정계영 노인은 주택에서 곤명시 관도구 국보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곤명시 구치소는 정계영을 불법감금할때 가족면회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가족은 정계영이 구치소에 감금된 것으로 알고 줄곧 국보대대에 정계영의 석방을 요구했었다.

대련시 사덕문 (谢德文) 생전에 잔혹한 구타를 받았다

중공사당이 파룬궁에대한 21 년 박해중 료녕성 대련시 파룬궁수련생 사덕문은 4 차례 불법감금, 2 차례 불법노동교양을 받았다. 마삼가(马三家) 노동교양소에서 각종 인성을 상실한 신심의 구타를 받고 2021 년 1 월 21 일 새벽 2 시에 57 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련구치소에 감금됐을때 사덕문은 경찰에 의해“지환(地环)”(손과 발을 같이 묶다) 자세로 반달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박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입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레를 밀어넣었으며, 식사때가 되면 손은 뒤에 고정되었기에 범인이 옥경에게 “밥을 어떻게 먹게하겠는가?”고 묻자 옥경은 “그더러 개처럼 먹게하라.”고 했다.

마삼가에서 고문 박해구타를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가



▲대련시 사덕문 여사가 생전에 받은 고문 중의 하나 “지환 잠그기(锁地环)”

옥했다. 사덕문이 작은 방에 갇혔을때 옥경은 사덕문의 두손을 수갑으로 고정한다음 어름같이 찬 쪽걸상에 앉혀놓고 한달후에야 풀어줬다. 작은 방에서 나온 후 또 호랑이 걸상에 4 일간 묶였던 그는 엉덩이가 헐어서야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고문구타를 반복한후 마삼가경찰은 사덕문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를 정신병원에 3 일간 감금해 백색과 홍색의 불명 액체주사를 놓았다. 사덕문은 당장 미쳐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옥경 진병(陈兵)과 정태용(丁太勇)은 모두 그에게 불명약물을 주사했다.

길림성 연변주 조양천 파룬궁수련생 최군영 (崔群英) 납치 정보 보충

4 월 3 일, 연변 조양천 파룬궁수련생 최군영(崔群英)은 연길 고속철로 안전검사에서 가방을 검사 받은후 국안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현재 연변철로공안처 연변대대 연길시 외근중대에 감금돼 절식으로 반박해하고 있다.

전화 : 0433-6111188

만(万)대장(국보대대)